

지속가능한 도시건축유산 보전을 실현하는 인도네시아 건축기록센터

박재현
인도네시아 가자마다대학교
건축도시계획학과
방문연구원

인도네시아 건축기록센터(Pusat Dokumentasi Arsitektur Indonesia: PDA, 이하 건축기록센터)는 인도네시아 도시건축유산의 종합적인 기록 및 연구를 위하여 2002년에 설립된* 비영리기관이다. 인도네시아 도시건축유산 상당수는 17세기 초에서 20세기 중반까지의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에 지어졌는데, 대다수 기록과 정보가 아직까지 네덜란드 내에 묻혀 있거나 존재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건축기록센터는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 건축뿐만 아니라 토속건축물, 불교·힌두교 유적, 이슬람 건축물, 화교 건축물, 전후 근대건축물 등 인도네시아의 전반적인 역사건축물과 역사지구에 대한 기록 및 목록화 그리고 연구, 출판, 교육훈련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경제발전을 동반하는 지속가능한 보전(conservation)에 관한 공공기관 및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기관이다.



건축기록센터의 연구 활동

© PDA / 潘在現

* 비공식적으로는 1994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다.

“유산은 미래를 위한
유산으로서
아무런 가치 손실 없이
좋은 상태로 보존되고
다음 세대에
전달되어야만 한다.”

- 인도네시아 유산 보존 현장

인도네시아 도시건축유산 보전은 네덜란드 식민지 정부의 1931년 문화재조례를 토대로 1992년 제정한 ‘문화재법(1992년 5호)’을 기반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법은 2010년에 문화재의 범위를 단일 개체뿐만 아니라 사적, 자연, 유·무형유산 등으로 확장한 ‘문화유산법(2010년 11호)’으로 개정되었다. 하지만 개정 초기부터 이 법을 뒷받침하는 대통령 또는 관계부처가 승인한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존재하였다.

가령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련하여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얹히는 경우 어느 부처가 주 책임기관이 되어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아직까지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고고학 유적은 교육문화부의 소관이지만, 일반 건축물이나 도시공간은 공공사업주택부 소관이며 수중문화유산의 경우 해양수산부 소관이 되는 등 절차가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다. 또한 공기업 소유의 건축유산의 적응적 재활용(adaptive reuse)을 위한 용도변경 시에는 기본적으로 재무부와 대통령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도 있다.

공공사업주택부는 2015년에 들어서야 ‘건축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부처령(2015년 1호)’의 제정 및 시행을 통해서 기존의 문화유산법 및 ‘건축법(2002년 28호)’과의 연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지방정부는 최근에 보존계획, 실행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건축기록센터는 이러한 일련의 법적 변화 속에서 도시건축유산 보존의 정착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역사 및 비전

건축기록센터의 설립은 인도네시아 국가유산의 일부분으로서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 건축유산을 조명하기 위하여 1988년 인도네시아건축가협회(IAI)와 네덜란드왕립건축가협회(BNA) 간에 체결된 협력의향서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 특히 1999년에 재무부 소유 건물인 옛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건물에 관한 기록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건축 교육을 받고 도시건축유산 보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거의 최초로 주장한 인도네시아 1세대 건축가인 한 아왈(Han Awal)을 비롯하여 인도네시아건축가협회장을 지낸 타루마나agara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부디 수카다(Budi Sukada), 같은 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자우하리 수민타르자(Djauhari Sumintardja), 인도네시아국립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문다르지토(Mundardjito) 등 9명의 전문가가 설립의 주축이 되었다.

건축기록센터 설립 전의 유산 보존에서는 오래된 건축물에 대한 기록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대학교·보전기구들이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바람에 정보의 수집 및 공유가 원활하지 않고 정리된 형태가 통일되지 않은 여러 문제들이 존재하였다. 또한 주요 담당부처인 교육문화부는 (아직까지도) 지나치게 고고학·인류학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탓에 건축물에 대한 구조적·시공적 이해가 부족하였다.

건축기록센터는 모든 형태의 보존 활동에 들어가기에 앞서 해당 건축문화유산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 및 기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기록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국내외 기관의 학자·연

건축기록센터의
비전은 “중요한
요소를 파악하고
존중해야만 한다.
잘 된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자”라는
기관의 모토를 통해서
잘 드러난다.

구자·건물소유주·건축가 등과 공유하고 이들의 자문에 응하고자 한다. 이러한 건축기록센터의 비전은 “중요한 요소를 파악하고 존중해야만 한다. 잘 된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자(The key elements should be known and respected. Let's start with a good record)”라는 기관의 모토를 통해서 잘 드러난다. 건축기록센터는 인도네시아 도시건축유산 보전 활동에 있어서 이러한 공헌에 힘입어 인도네시아건축가협회로부터 2017년 미디어·프로그램 부문 감사장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으로부터 2010년 헤리티지 어워드를 수상하였다.

조직 규모 및 파트너십

건축기록센터에는 현재 직원 11명과 인턴 2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 중 연구 전담 인력은 6명으로, 5명은 건축학을, 1명은 도서관학·서지학을 전공하였다. 연간 예산은 약 12억 루피아(약 1억 원)로, 주로 개별 프로젝트 제안서 낙찰을 통해서 정부부처와 민간기업 및 국외기관 등으로부터 받는 기금으로 구성된다.

건축기록센터는 국내외 대학교, 정부기관, 전문가 협회 및 비영리단체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인도네시아국립대학교 외 9개 대학교, 공공사업주택부, 교육문화부, 관광부, 재무부, 자카르타주 문화보전국, 국립고고학연구소, 국립도서관 등의 정부기관, 인도네시아건축가협회(IAI), 인도네시아 헤리티지트러스트(BPPI) 등이 주요 협력 파트너이다. 네덜란드 정부기관과 민간기업, 호주 문화유산 전문가 네트워크인 AusHeritage, 캐나다건축센터뿐만 아니라 자카르타에 소재한 UNESCO(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및 세계은행 과도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건축기록센터는 국제건축박물관협회(ICAM)의 회원이기도 하다.

주요 프로젝트 및 출판물

인도네시아 건축박물관 웹사이트 구축(2016~2018)

네덜란드로부터 독립 후의 ‘인도네시아적인 건축’에 관한 건축 담론들과 이와 관련된 역사기록물·건축작업물·도해·시청각자료 등을 수집하여 공개하는 온라인 오픈 플랫폼으로서, 건축기록센터에서 웹사이트 구축을 지원하였다. 현재까지 업로드된 자료의 양은 많지 않으나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자료들이 공개될 예정이며, 건축기록센터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건축박물관 웹사이트
자료: <http://www.arsitekturindonesia.org/>



자카르타 역사지구 건축문화유산
인벤토리

자료: <http://www.lestarianbanguntua.info/>



인도네시아 역사요새 인벤토리

자료: <http://benteng.architectureheritage.or.id/>

자카르타 역사지구(Kota Tua)

건축문화유산 재활성화(2014~2016)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화교풍 주택과 사원, 아랍풍 모스크, 포르투갈풍 성당, 독립 후 근대건축물과 다민족·다문화적인 음악 등 역사지구 내에 위치한 유형유산 및 무형유산을 계속되는 도시개발·상업화·기후변화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UNESCO에 출연한 인도네시아 신탁기금(UNESCO/Indonesian Funds-in-Trust)으로 100% 운영되었다.

건축기록센터는 UNESCO 인도네시아 사무소, 공공사업주택부, AusHeritage, 인도네시아건축가협회 등과 함께 1차 보전 워크숍부터 주요 파트너로 참여하였다. 역사지구 내에 위치한 건축문화유산의 역사 및 보전 상태에 관한 기록뿐만 아니라 건물소유주 교육, UNESCO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역량 강화 및 역사도시경관(historic urban landscape 또는 HUL) 방법론 소개, 청년 예술가 교육 등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졌다. 이 프로젝트에서 특히 공공사업주택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한 교육 워크숍은 문화유산법의 구체적인 실행 지침이 되는 2015년 건축문화유산 보전에 관한 공공사업주택부처령의 제정 및 시행과 여러 기술 가이드라인의 수립에도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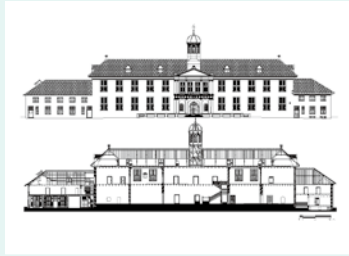
또한 프로젝트가 종료된 후에도 건축기록센터는 인도네시아헤리티지트러스트와 함께 공공사업주택부와 지방정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연 2회 워크숍을 꾸준히 열고 있다. 역사지구 내 총 7개 구역 170개 건축물을 기록한 결과물은 자카르타 역사지구 건축문화유산 인벤토리에 전부 공개되어 있다.

인도네시아 역사요새 기록화(2007~2010)

건축기록센터는 교육문화부의 발주 및 네덜란드 외교부의 지원으로 인도네시아 전역에 소재한 역사요새 총 442곳을 기록하여 책으로 펴내고 전시회를 열었다. 이 역사요새들은 16세기부터 침입한 포르투갈·네덜란드 등의 외세를 방어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인들이 설치한 토속적인 요새 및 성벽에서부터 포르투갈, 네덜란드·스페인·영국 상인들과 군인들이 자국의 무역활동을 방어하고 통치하기 위하여 설치한 요새, 제2차 세계대전 시 일본군이 지은 벙커와 동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특히 식민지 시대에 지어진 요새는 내부에 사무실·창고·교회·병원·주택 등의 시설이 위치하여 서양 문명이 동양의 열대기후와 자연환경에 정착한 형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과거에 총 459곳의 요새가 존재하였다고 다룬 역사적 자료들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1차연도에 인도네시아 동부지역, 2차연도에 서부지역, 3차연도에 중부지역에 대해 연구·기록화를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총 94곳의 요새가 문화유산법상 보호 대상으로 등재되었으며, 다수 요새들의 복원 및 적응적 재활용에 대한 사회적 환기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프로젝트는 교육문화부(및 전국 각지의 산하 지역사무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공통된 보전 용어들로 대화하기 시작하였다는 측면에서 건축기록센터에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건축기록센터는
자신들의 작업을
의료 행위에 빗대어
설명한다.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살펴본 다음
적절한 조치를 처방하듯,
수리 및 복원에 앞서
건축가로서 해당
건축유산의 상태를
진단한다.”



자카르타 역사박물관 입면도 및 단면도



자카르타 역사박물관 평면도

©건축기록센터

자카르타 역사박물관 연구 및 기록화(2009~2011)

자카르타 역사박물관은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바타비아(자카르타의 전신) 시청으로 1710년에 지은 건물이다. 건축기록센터는 주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대사관의 지원을 바탕으로 자카르타 역사박물관에 관한 연구와 기록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세세한 수작업을 통해서 건축기록센터는 창문틀과 나무바닥 등의 많은 부분에서 심각한 파손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보전복원에 관한 청사진을 담은 보전관리계획을 자카르타 주정부에 제시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카르타 주정부는 2011년 7월에 박물관의 운영을 중단하고 2012년에서 2015년까지 보전복원에 착수하였으며, 건축기록센터는 시공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맡았다.

인도네시아 은행박물관 역사연구, 측량, 도면화(2000~2010)

인도네시아 은행박물관은 기존에 자카르타 역사지구 내에 위치한 서양식 병원 건물을 네덜란드 식민지 정부가 금융 기능을 위해서 1828년부터 은행 건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수차례의 해체 및 증축을 거치면서 서양의 신고전 건축양식과 동양의 힌두교 장식 그리고 인도네시아 자바 지역 목조공예의 조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건축물이다. 건축기록센터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수많은 관료주의적 난관을 극복하면서 중요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이 건물의 소유주인 재무부는 통상의 입찰 시스템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할 전문가를 고용하는 데 계속 실패하면서 인도네시아에서는 드물게 대통령의 특별 허가를 받아 건축기록센터와 수익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프로젝트의 전체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지만, 건축기록센터는 인도네시아 전역에 여러 건축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은행과 유대를 쌓을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은 이후 공기업 소유 건축물이 대다수였던 자카르타 역사지구 프로젝트 수행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인도네시아 은행박물관 프로젝트 수행 모습

©건축기록센터

주요 출판물



인도네시아의 요새
(2013)



갈등의 시간: 건축적
관점에서 바라본 지난
100년 (2012)

기타 활동자료



자카르타 역사지구
재활성화 결과
전시회



역사지구 재활성화 이해관계자
훈련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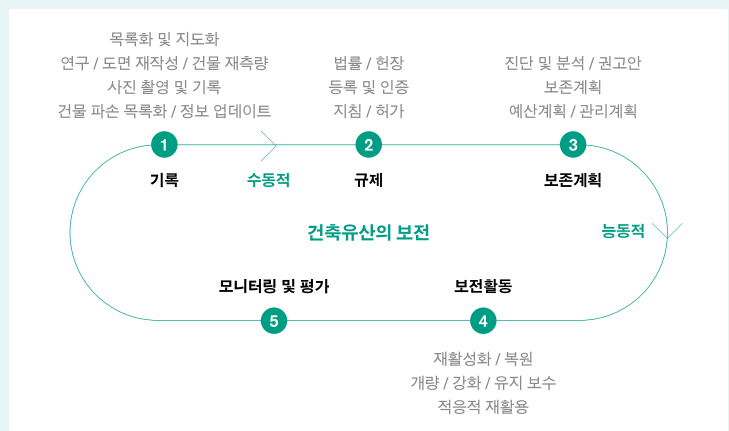
도서관 소장자료

현재 건축기록센터는 총 795권의 서적,
2615개의 아티클, 23점의 시청각자료,
55종의 건축도면, 33권의 잡지, 149권의 연구보고서,
8종의 지도 등을 소장하고 있다.

연구 추진 및 수행 절차

건축기록센터는 자신들의 작업을 의료 행위에 빗대어 설명한다. 의사가 먼저 환자의 증상을 살펴본 다음에야 적절한 조치를 처방하는 것처럼, 건축기록센터는 수리 및 복원에 앞서 건축가로서 해당 건축유산의 상태를 진단한다. 예를 들어 개별 건축물 단위에서, 건축기록센터는 건축물의 원형과 함께 변형된 부분을 파악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이러한 변형에는 창문과 문의 추가뿐만 아니라 에어컨이나 비상계단 설치 등 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변형이 포함된다. 가능한 한 모든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수집하여 향후 건물 바닥에 균열이 가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건축기록센터는 건축가 또는 시공업체에 동일한 재료를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건축기록센터는 사진, 필름, 3D 레이저 스캐너, 핸드드로잉, GPS 등 다양한 매체와 도구를 활용하여 단순히 건축물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건축물을 실측량하고 도면을 재작성하며 건축물의 역사(심지어 건물 소유주의 변천도 포함)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보존복원 지침을 수립한다. 자카르타와 다른 인도네시아 도시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수집·기록된 정보와 이미지들은 건축기록센터뿐만 아니라 타 기관의 보전 및 교육 활동에 재차 활용될 수 있게끔 공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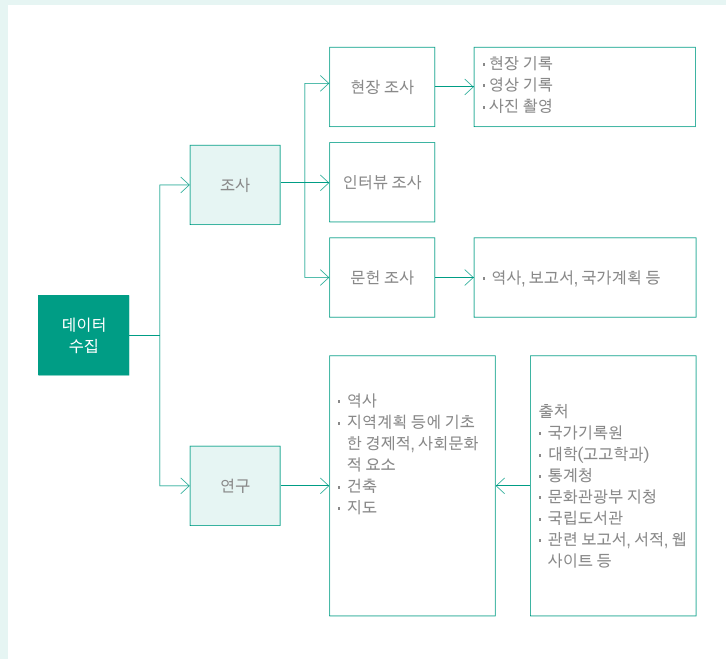
건축기록센터는 미국 국립공원청(National Park Service)의 역사건축물 조사(Historic American Buildings Survey: HABS) 및 역사건축공학 기록(Historic American Engineering Record: HAER) 프로그램, 네덜란드 정부 유산보전기관인 Rijksdienst voor het Cultureel Erfgoed,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등이 사용하는 표준 형태를 자신들의 현장 경험에 기초하여 수정한 기록 방법론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건축기록센터에서 추구하는 세밀한 기록화·도면화는 현재 인도네시아 대학교 건축학과 학부과정에서 많이 가르치지 않는 부분이다. 건축기록센터는 이러한 방법론을 여러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것을 통해서 학계 및 학생들과 공유하고 있으며, 현재 건축 전문가나 건축학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산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다.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건축유산보전 순환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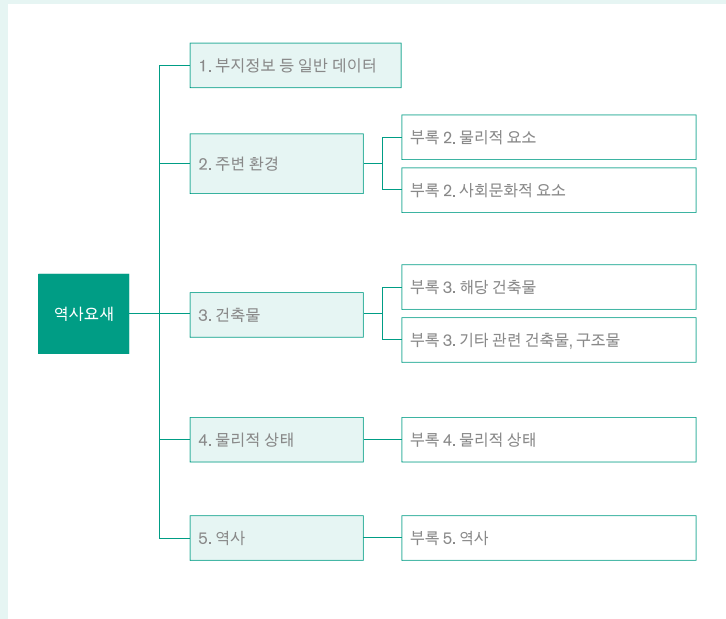
자료: Suryaningsih and Purwestri(2013). "Documenting living monuments in Indonesia"

“건축기록센터는
건축물을 기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건축물을
실측량하고 도면을
재작성하며 건축물의
역사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보전복원
지침을 수립한다.
수집·기록된 정보는
타 기관의 보전 및 교육
활동에도 재차 활용될 수
있게끔 공개된다.”



건축기록센터의 데이터 수집 체계

자료: Rinandi and Suryaningsih (2015), "Inventory of forts in Indonesia"



수집 데이터 구조(인도네시아 역사요새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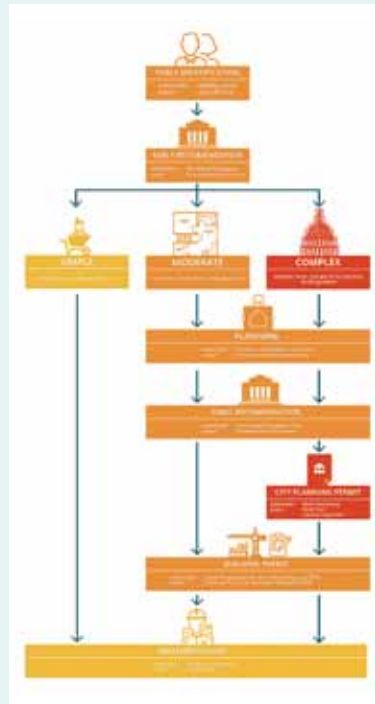
자료: Rinandi and Suryaningsih (2015), "Inventory of forts in Indonesia"

한편 건축기록센터는 다학제적 접근을 지향한다. 보로부두르(Borobudur) 힌두 사원과 같은 고고학 유적지의 경우 건축기록센터는 고고학자들과 협력하여 사원 기단의 재료와 토양 구성을 파악하여 동일한 재료를 보전복원에 사용하는 한편 구조공학자들과 함께 하중 실험을 실시하여 유적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2007~2010년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의 발주로 역사요새 기록화 작업을 수행하였을 때는, 요새를 구성하는 여러 건축요소들이 인도네시아어로 된 명칭을 갖고 있지 않음에 따라 언어학자들과 함께 다수의 토속어·네덜란드어·영어 보관기록들을 들춰보고 인도네시아어 사전에 적절한 용어를 새로이 등록하였을 정도로 다학제적 작업의 특징을 띠었다.

자카르타 역사지구 건축문화유산 재활성화 프로젝트에서의 사업수행 절차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졌다. 먼저 소유주와 함께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 초기에 확인하고 초기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다음에 건축기록센터가 해당 건축물의 수리복원을 위한 임시 권고문을 작성하였다. 이 권고문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해당 건축물에 요구되는 수리복원의 난이도를 '단순(simple)' '중간(moderate)' '복잡(complex)'의 세 단계로 구분하여 각각의 단계에 해당하는 세부 절차를 수행하기 위함이었다.

'단순'한 수리 및 재도색이 필요한 건축물에는 추가적인 법적·계획적 절차 없이 곧바로 건축가 및 시공업체가 개입하였다. '중간' 난이도의 리노베이션, 면적 확대, 추가적인 공간 구획이 필요한 건축물 및 '복잡'한 적응적 재활용, 기능 변화, 증축이 필요한 건축물을 대상으로는 총 4단계의 세부 절차를 거쳤다. 먼저

건축가·고고학자·시공업체가 참여하여 보전계획을 수립하여 문서화하였다. 그 다음으로 건축기록센터는 이렇게 수립된 보전계획을 토대로 해당 건축물의 수리복원을 위한 최종 권고문을 완성하였다. 최종 권고문으로 시의 건축 인허가부서와 건축허가를 ('복잡'한 수리복원은 여기에 더해 공간계획부서와의 블록계획 및 도시계획 허가가 추가로 요구된다) 협의한 다음에야 건축가 및 시공업체에 의한 실제적인 수리복원이 이루어졌다.



자카르타 역사지구
건축문화유산 재활성화 프로젝트
사업수행 절차

자료: <http://www.lestarikanbangunantua.info/>

INTERVIEW



**Febriyanti (Ria)
Suryaningsih**
건축기록센터
Executive Director

자카르타에 소재한 건축기록센터 사무실에서 Febriyanti Suryaningsih 대표와의 인터뷰는 온라인에 공개된 자료들에 드러나지 않는 내용들을 소개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건축기록센터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실제 프로젝트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네덜란드 전문가들과의 협력 경험 등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소개한다.

- ㉠ 전반적인 문화유산 보전 분야에서 시민참여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 건축기록센터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시민참여에 접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건축기록센터에서 주로 수행하는 도시건축유산의 기록 및 디지털화는 작업의 특성상 매우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따라서 건축기록센터는 일반적으로 기록화 이후에 다양한 형태로 시민참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가령 UNESCO 자카르타 역사지구 프로젝트를 마친 후에는 오픈 데이터를 구축하고 거주자와 시민들에게 어떻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를 소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들이 문화유산의 가치를 이해하고 각자의 경험을 서로 공유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요새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문화유산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이야기도 지역사회와 공유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역사요새들은 보전 상태가 각각 너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상태가 우수한 요새에 관한 이야기들이 저희보다는 지역사회의 입을 통해서 다른 요새에 위치한 지역사회에 전해질 때 더 효과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 ㉡ 건축기록센터는 정부기관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그동안 긴밀하게 협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영리기관으로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정부기관 및 지역사회와 한 단계 한 단계씩 차근차근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건축기록센터는 유산에 대한 기록을 면밀히 마친 후에 다음 작업에 들어가는 것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지방정부를 이끄는 주지사와 시장들은 때때로 5년의 임기 내에 되도록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져서 주지사와 시장이 제정하는 행정령이 중요한데, 새로운 사람이 취임하면서 갑작스럽게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예산은 1년 단위로 책정되고 주의회·시의회를 통해서 승인되는데, 때로는 추가경정예산 승인이 9월에, 차년도 예산 승인이 12월에 이루어져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데 시간적인 제약이 따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건축기록센터는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의회를 설득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기록센터는 네덜란드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지만, 좌파 또는 우파 정권의 교체에 따른 대외협력기조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
- ㉢ 네덜란드와의 협력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루는 많은 건축이론과 보전이론들이 서양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와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인도네시아만의 특성이라든지, 역으로 네덜란드 전문가들에게 제공한 시사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네덜란드와는 다르게 인도네시아는 다양한 민족들이 공존하는 면적이 큰 나라여서 문화유산 보전의 초점이 네덜란드의 그것과 항상 동일하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문화·다민족을 아우르는 국가정체성의 재발견은 보전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한편 문화유산 보전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하는 것은 여전히 인도네시아에서는 중요한 과제이지만 네덜란드나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보다 많은 인내심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네덜란드 전문가들에게도 때때로 그러한 인내심을 요구하게 됩니다. 또한 건축적인 측면에서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록센터의 작업은 네덜란드 현지 아카이브에 보관된 기록

- 1 <http://pda.or.id/>
- 2 <http://www.lestarikanbangunanua.info/>
- 3 <http://www.arsitekturindonesia.org/>
- 4 <http://benteng.architectureheritage.or.id/>
- 5 <http://www.atlasofmutualheritage.nl/>
- 6 <http://dev.iucp-ift.org/project/old-city-new-vision-first-phase-project-for-the-revitalization-of-kota-tua-old-cityjakarta-through-sustainable-tourism-and-heritage-conservation/>
- 7 Kompas. (2017, May 12). "Cara pusat dokumentasi arsitektur melestarikan bangunan pusaka [How the Center for Architectural Documentation preserves heritage buildings]". Accessed November 3, 2018 from <http://klasika.kompas.id/cara-pusat-dokumentasi-arsitektur-melestarikan-bangunan-pusaka/>.
- 8 Rinandi, Nadia, and Febriyanti Suryaningsih. (2015). "Inventory of forts in Indonesia", presented at the *ISPRS Annals of the Photogrammetry, Remote Sensing and Spatial Information Sciences*, 2(5), 263-270. Accessed from <http://citeseerx.ist.psu.edu/viewdoc/download?doi=10.1.1.849.9709&rep=rep1&type=pdf>.
- 9 Suryaningsih, Febriyanti, and Nadia Purwestri. (2013). "Documenting living monuments in Indonesia: Methodology for sustainable utility", presented at the *ISPRS Annals of the Photogrammetry, Remote Sensing and Spatial Information Sciences*, 2, 617-622. Accessed from <http://www.int-arch-photogramm-remote-sensspatial-inf-sci.net/XL-5-W2/617/2013/isprsarchives-XL-5-W2-617-2013.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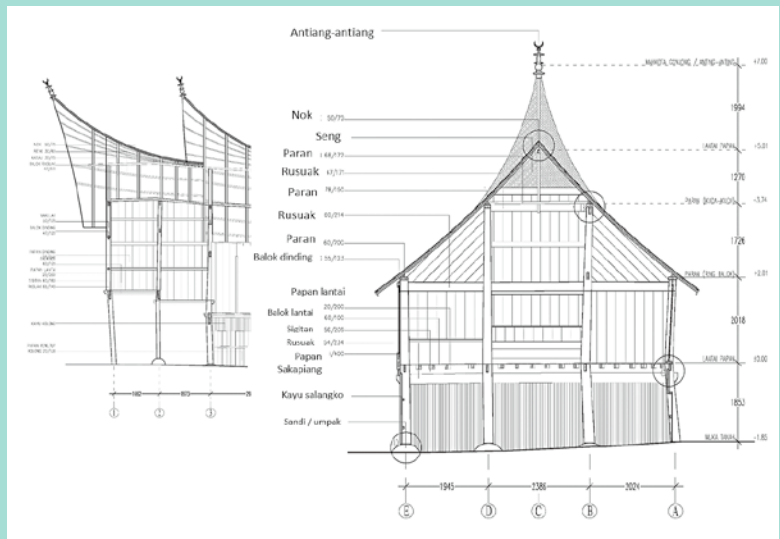
(주로 도면)이 빠뜨린 부분을 보완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신고전양식으로 설계된 건축물이 화교 기술자들에 의해 지어지면서 발생한 다양한 화교풍, 힌두교 그리고 인도네시아 토속적인 특색이 드러나는 건축적 변용에 대한 발견이 그 예입니다.

아울러 중앙은행의 망가진 타일에 대한 복원을 하려고 보니 당시 타일을 생산하였던 네덜란드 현지 공장이 이미 없어져서 반둥공과대학 조소과와 협력하여 유사한 타일을 생산해서 네덜란드 전문가들과 복원한 경험도 있습니다. 2019년 9월에 인도네시아-네덜란드 교류 400년을 기념하는 전시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관한 건축 전시회를 통해서 양국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㉓ 마지막으로 현재 건축기록센터에서 주력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㉔ 건축기록센터는 올해 1월부터 수마트라섬에 위치한 솔록 슬라탄군에서 공공사업주택부와 함께 세리부 루마 가당(Seribu Rumah Gadang)이라 불리는 전통가옥 30여 채에 대한 보존복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기록화 및 도면화는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정원에 심는 매우 토속적인 식재나, 화재 시 대처를 위해 조성한 수영장에서 역사적 가치를 발굴하는 중입니다. 정문 앞 바닥에 산호를 깔아서 외부인이 방문할 때 알아채는 소리벨로 활용한 것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인근의 삼림을 보존해서 건축 재료를 확보하고 지역 목수들을 양성하고 싶은데, 공공사업주택부의 표준적이고 까다로운 기술요건과의 괴리를 극복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또한 해상무역의 전통으로 인해서 다수 가옥의 집주인이 부재하고, 친척이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면서 전통에서 벗어나게 개조하고 열악하게 유지하는 상황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수마트라섬 전통가옥 도면